

지난해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간했다 통권 2호로 발행중단됐던 <계간 만화>가 새로운 발행사업체에 등지를 뜬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계간 만화>는 판형변화를 하면서 외적인 면에서도 변화를 주었지만 내적인 면에서도 풍성한 콘텐츠를 구축해 '만화정론지'로서의 새로운 행보가 주목되는 재발돋움을 했다. 특히 지난해 새 발행사업체 공모에서 당선돼 발행권을 이어받은 씨앤씨레블루션은 잡지의 대중성 강화를 위해 공

식 홈페이지(www.qcomic.com)를 오픈하는 등 온라인 홍보에까지 열의를 보이는 상태. 이 노력들을 허사로 만들지 않으려는 독자들의 관심에 힘을 얻은 발행인 이재식 씨(씨앤씨레블루션 대표)와 편집부는 봄호의 미비한 점들을 보충할 여름호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6,000부 중에서 2,000부 나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아직 성공이라 할 만큼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수준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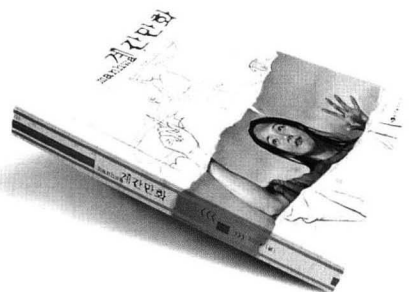
왔더군요. 사실 정객적인 문제들 때문에 광고도 안 받고 있고, 정기구독도 따로 안 하는 상황인데 단 몇 분이지만 구독하시겠다고 전화주문을 하시는 분들 덕에 힘을 얻습니다."

올해 초 <계간 만화>의 주인이 된 씨앤씨레블루션은 본래 온라인 만화업체로 만화계에 이름을 내밀었다. 온라인 웹진에 연재됐던 작품을 단행본으로 출간하긴 했으나 코믹스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자 단행본 발행 중단 후 웹진만을 운영하던 중에 <계간 만화> 사업체로 선정된 것. 이로써 씨앤씨레블



신구세대들이 한자리에,
만화계 허브로 거듭난 만화정론지

<계간 만화> 발행인 이재식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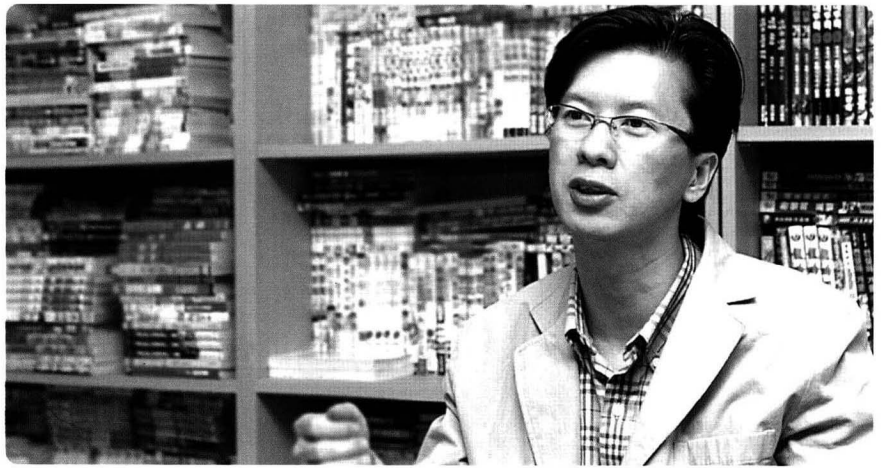


루선은 오프라인 출판분야에 진입하는 기회를 다시금 얻게 됐다. 지난 12월에 사업협약을 끝낸 후 인력구축과 편집방향 설정에 주력해 왔던 이재식 대표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부담은 잡지의 정체성 확립이었다. 특히 잡지발행을 통해 특정 작품을 연재하고 이를 단행본 출판으로까지 확장시켜 수익을 내는 만화 잡지계 형편 자체가 어려운 데다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니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전에 나온 <계간 만화>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덕에 확실한 방향설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호는 실험성이 짙다는 평을 받았거든요. 그걸 장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한편으론 만화계 현안을 점검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하고 인접문화인 회화, 사진까지 소개하면서 영역만 확장했다는 아쉬움도 들려왔죠. 그래서 저흰 그 아쉬움을 채워나가고자 철저하게 만화담론들을 이끌어내자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계간 만화>는 올 봄호부터 만화계의 허브, 즉 중심이 되는 잡지로 다시 태어났죠”

물론 편집방향 의논과정에서 주류잡지와 다른 대안잡지로서 인디만화 등을 적극 수용하는 잡지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편향된 시각보다는 성인과 청소년, 남과 여 등으로 독자층을 분산시킨 만화잡지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심역할’을 해줄 정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재식 씨 역시 철저하게 만화중심으로, 만화계 전체의 목소리를 담은 잡지로 만들자는 데 생각을 같이 했다.

결국 <계간 만화> 봄호는 한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만화산업분석부터 성공사례 제시, 만화현장의 목소리까지를 풍부하게 담아내는 만화정론지로서 재탄생됐다. 이 잡지의 특성은 애초 편집진의 방향대로 만화계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현세, 허영만, 이희재, 김동화 등 기라성 같은 기성작가들이 권두칼럼, 대담 등에 참여해 주고, 이유정, 신영우 등의 젊은 작가들이 작가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들을 발표해 주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최규석, 석정현, 마정원 등의 신인작가들이 힘을 가세한 것만 봐도 쉽게 감지가 된다. 특히 좀처럼 만나지 않았던 만화계 신구세대들이 한국만화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는 데서 큰 의미를 남기고 있다.

“20여 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주셨고 다양한 만화계 인사들이 원고를 써주셨죠. 여기에 저희 내부취재 인력들까지 합쳐 총 900매에 이르는 원고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집기사인 창작환경 분석에 주력을 다했는데 환경만 우려한 것은 아니고 대안의 하나로 성공사례들을 제시했죠. 이유정, 형민우 등 해외시장에 진출한 작가들을 만나 또 다른 돌파구를 찾는 게 그 예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안들은 계속해서 내용을 계획합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애니메이션센터에서 각 호마다 4,6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봄호의 경우는 저희의 투자비용 2,000만 원을 더해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처럼 소규모 업체에선 거의 올인한 것이나 다름 없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기분은 좋습니다.”

사실 이 대표는 어릴 때부터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만화광이었다. 한때 만화가를 꿈꾸기도 했고, 주류만화의 대안적 모색을 하던 단체인 우리만화발전연대에 출입하며 만화강습을 듣기도 했으며 대원 씨아이, 서울문화사 등 만화잡지사 기자로도 활동한 ‘국내 만화통’이다. 그러니 침체되는 국내 만화시장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차에 들려온 지원사업 공모 소식은 그에겐 더없이 반가운 기회로 다가왔다.

“만화계를 살리는 데 일조할 잡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작년과 달리 저희 사업체로 옮긴 이후에

는 일부 지원을 받는 구조구요. 수익금 전액은 저희가 갖습니다. 주신 지원금은 순수제작비, 인건비, 원고료에만 쓰이게 돼 있고 500부를 납본해야 합니다. 그 밖에 모든 편집권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지요. 만화잡지 시장이 워낙 어렵다보니 어떻게든 자생력을 길러보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희는 내년 여름 호까지 6권을 내게 돼 있는데 그 후에 추가사업자 공모를 하면 다시 지원해야 하지만 우선 저희가 발행하는 동안에는 창작방법이며 대안들을 계속 내용을 계획합니다. 다음호에는 <윙크> 편집부를 분석하고, 만화스토리 작가로서 일본 진출을 한 윤인완 씨 등을 소개할 계획인데 그 외에도 만화 콘텐츠, 현장의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담아낼 생각이죠.”

<계간 만화> 봄호에 게재된 권두칼럼에서 만화가 이현세 씨는 “지금까지 만화는 경쟁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만화계는 경쟁자 없이 호황을 누리면서 훗날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지 못한 채 한가롭게 시간을 보냈다는 일침이다. 이재식 씨는 이현세 씨의 말에 동의하고, 한편 일본만화에 등을 기댄 채 성장한 국내출판사들이 창작환경을 피폐하게 만든 점을 지적하면서 <계간 만화>가 이렇듯 어려운 한국만화계의 재성장을 돕고, 그것을 하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심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계간 만화>를 축으로 만화계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지 그 미래가 주목된다. **문**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